# 2008년도 여성재단 지원사업을 공모하면서

박영숙 본재단 이사장

'딸들에게 희망을!' 기치아래 성평등사회를 위한 여성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한국여성재단의 기본기능은 기금모금과 배분사업이다. 돈을 모으는 일도 어렵지만 모은기금을 어떻게 배분하는가 하는것도 쉬운일이 아니다. 2003년도부터 시작된 배분사업이 올해로 5년째를 맞고 있는데 재단의 배분위원회는 해마다 적재적소에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심한다. 그고충의 핵심은 배분할수 있는 모금액이 필요에 비해 태부족이라는데 있다. 그런데도 2008년도 배분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할수 있게된것은 지난 5월 한달 진행된 100인기부릴레이에 참여한 3020여명의 개인기부와 보다 행복한 세상을 꿈꾸고 있는 기업의 사회공헌팀과 더불어 하는 공동사업 기금이 마련되어서 이다.

재단이 관례에 따라 8월20일 여성단체와 여성기관을 대상으로 공고한 지원사업에는 자유공모와 기획공모가 있다. 2008년도 자유공모 부문에는 100인기부릴레이 모금으로 충당되는 성평등사회 조성 활동과 SK텔레콤과 함께하는 여성복지 사업이 있다. 기획공모부문에는 삼성사회공헌팀이 지원하는 여성활동가 글로벌 리더쉽 육성사업, 교보생명이 지속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활동가들의 재충전과 역량강화 사업, CJ홈쇼핑이 적극 후원하고 있는 소외여성의 건강지원사업, 우림필유의 장학사업 등이 있다.

재단이 이들 사업지원을 위해 10억기금을 목표하고 있는가운데 현재 7억여원이 확보되었다. 재단은 목표달성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우리고 있다. 재단은 공모사업외에 2008년도에는 급전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을 위해 SBS가 쾌척한 20억 기금으로 <SOS Cash>를 운영하게 된다.

재단의 2008년도 지원사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기획공모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기업의 사회공헌팀들이 21세기는 여성의 세기라는데 걸맞게 여성의 지도력양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최근들어 여성공익활동가들의 재교육, 재충전, 복지문제 등에 주목하고 있는것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여성공익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바람직한 현상이다.

우리사회에서 어느 조직 집단 보다 여성단체 활동가들의 활동환경이 열악한것이 현실이다. 일정한 출퇴근시간이 없는것은 물론 이들에게는 공휴일도 없다. 지식조직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성 보강과 자신을 도라볼 재충전의 기회도 전무하다. 그리고 생활인으로서의 임금은 활동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공익활동을 [illegible] 적으로 선택할수 없는 모든 조건을 가추고 있다.

여성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성운동이 필요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비록 여성운동이 없어도 되는 세상이 온다고 해도 여성단체활동은 멈출수 없는것이 오늘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치이다. 사람들이 삶의 질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분출되는 다양한 욕구를 공적영역에서 감당해 낼수 없는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것은 민간영역에서의 발란티어리즘이다. 여성단체의 역할은 세상 끝날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여성의 발란티어리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단체의 사업지원도 중요하지만 일을 해내는 활동가지원을 위한 투자에도 소홀히 할수 없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2007년도에서부터 시작된 활동가들지원을 위한 기획공모사업이 점차 활기를 더해가고 있는것은 기업의 사회공헌팀들이 지금까지의 여성단체활동에 대한 인식을 달리함과 동시에 이들의 사회공헌에 대한 기여를 인정한것이라고 여겨져서 여성계는 환영한다.

2008년도 자유사업공모에도 [illegible] 많은 단체들이 좋은 신안으로 참여하여 여성발전, 사회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